

NUTS

LOCAL ART MAGAZINE



하동책방

시인 박남준

지리산 남부능선 끝들 거림으로
방점을 찍은 하동 악양

일찍이 글썽 문바위암

천년 문암송 키우고 사는

큰 바위 터 잡고 있으니

그 아래요기 어디쯤

책방들 어설 줄 알았다

비워지면 다시 채워지는 생명

들 거듭난다 조화로운 평사리

너른 들녘처럼

하동 책방의 서가에 향기로운

사람의 발걸음이 불비네

흘러온 길 구비구비 섬진강

강과 바다의 기수역이 되어 만나네

비워지면 다시 채워지는 생명들 거듭난다

조화로운 평사리 너른 들녘처럼

하동 책방의 서가에 향기로운

사람의 발걸음이 불비네

흘러온 길 구비구비 섬진강

강과 바다의 기수역이 되어 만나네

그리하여 하동 책방에는

한낮에도 별 같은 사람들이 반짝여서

그 눈빛으로 환하고

밤이면 글을 읽는 이들의 조고 그윽한 서권기로

책의 그요가 어둠을 밝히리라

여기 지리산 자락 세상의 아픔에 외면하지 않은 나 흔들리지 않는 책방이 있네

여기 맑은 섬진강가 날개를 편 들추들꿈으로

자꾸만 채워지는 하동 책방이 있네

단기 사천삼백오십칠년 서기 이천이십사년 일월 이십칠일 하동 책방 여는 날에 시인 박남준 짓고 쓰다



NUTS 2024년 12월 2호

등록일 2023년 06월 15일

등록번호 창원, 바00023

발행일 2024년 12월 9일

발행처 (주)새봄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콘텐츠코리아랩 221호

전화 055-716-2279

본 잡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 실천 요강을 준합니다.

주식회사 새봄의 NUTS 매거진 모든 기사는 무단전재, 복사,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새봄

주식회사 새봄은 '새처럼 나는 기쁨'이라는 의미로 중력에 벗어난 사고와 발상으로 세상을 기쁘게 만들자라는 신념 하에 출발한 기업입니다. 그림으로 세상을 기쁘게 만드는 경남을 기반으로 로컬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전달합니다.

발행인 조세희

편집에디터 정서인

표지 일러스트 김다빈

디자인 (주)새봄

교정교열 JOJ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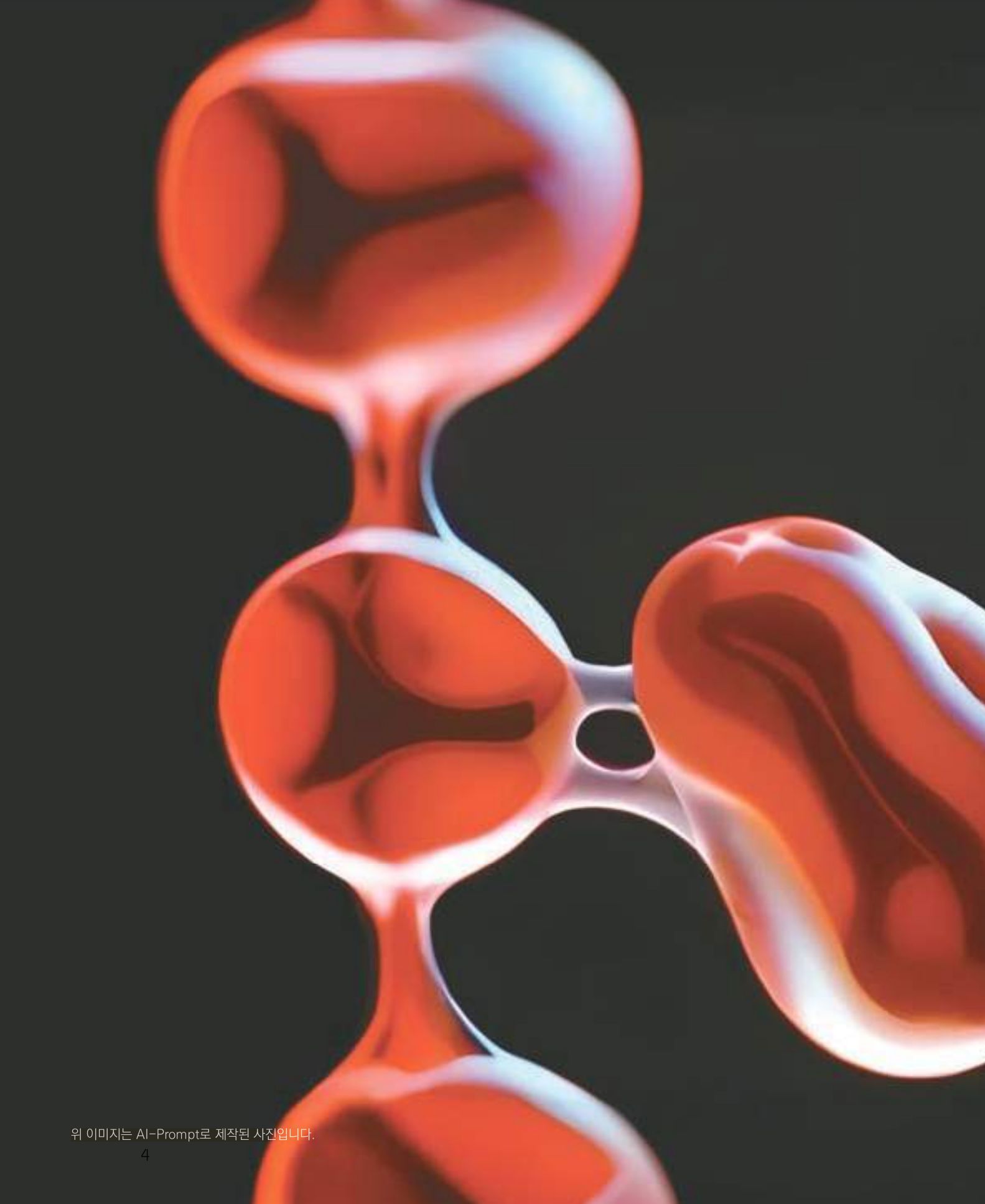
대표 조세희

인쇄 덕화제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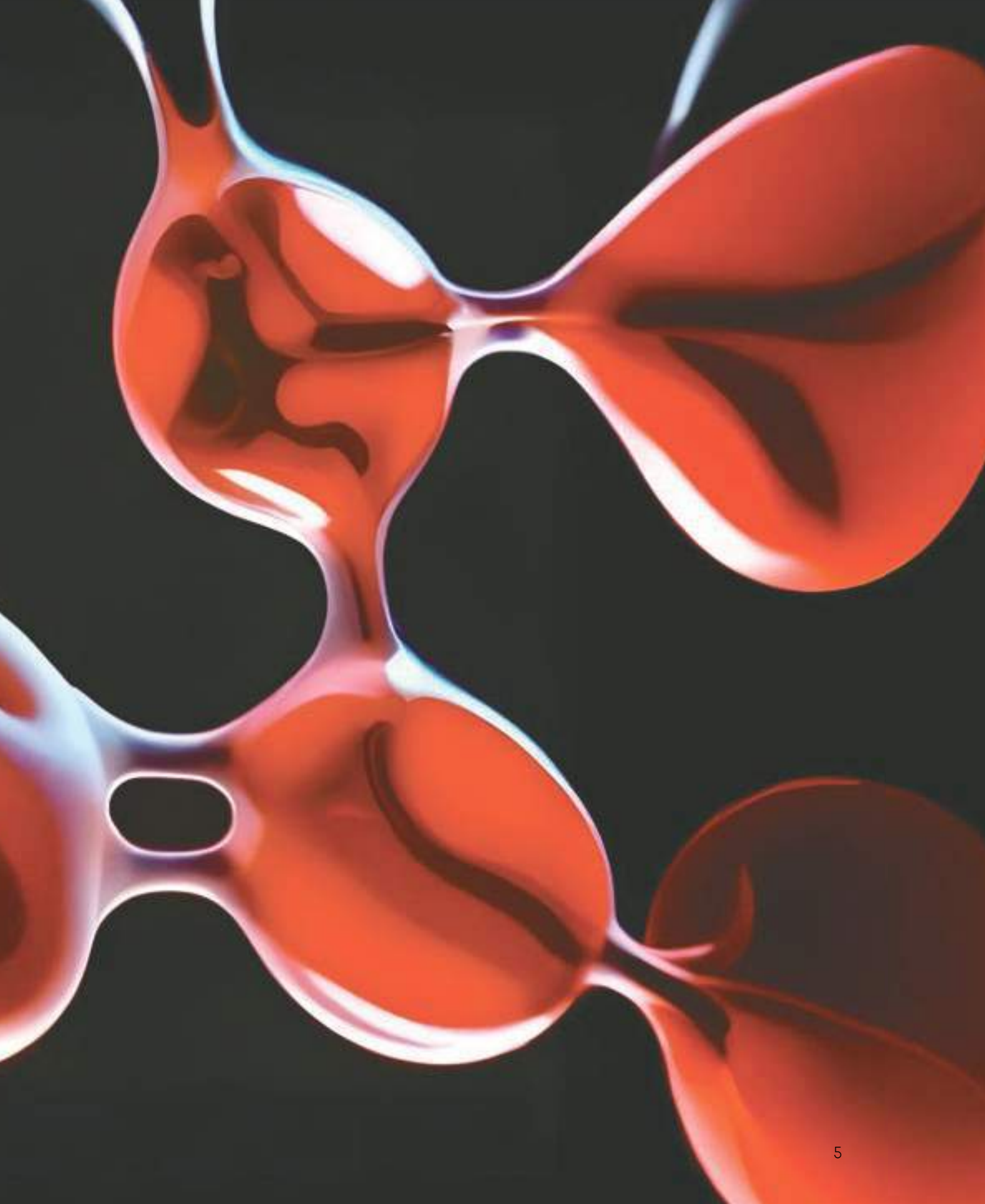
홈페이지 <https://NUTSLAM.COM>

광고문의 help@nat slam.com

인스타그램 nuts_lam



위 이미지는 AI-Prompt로 제작된 사진입니다.



NUTS 발행에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들

예그리나 강인성 대표, 천울 송진호 대표, 산해 김성자 대표, 남해 구판장 박성욱 대표, 이수미 대표, 크롭 조정완 대표, 서핑할래 고대건 대표, 인절미 투어 유한회사, 네일 아카이브 신예향 대표, 새미에르 이새빛 대표, 메이다베일 강예서 대표, 아름다운 봄 이부자 대표, 이런 책방 이혜원 대표, 하동 책방 강성호 대표,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남해군 청년센터 바라, 의령군 청년센터 청춘만개, 우주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김해국립박물관, 진주국립박물관,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일러스트레이터 김다빈

NUTS 구독



연간 1회, 지역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로컬아트매거진 NUTS 입니다.

경남 지역 숨은 곳곳마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우리 안의 살아있는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 전달하는 지역브랜드로서 자리잡고자 합니다.

NUTSLAM.COM

CONTENS

●
여는 글

美
●
진주

- 18 | 네일아카이브
- 22 | 새미에르
- 26 | 메이다베일

歌
●
함안&의령

- 32 | 예그리나
- 36 | 천율

味
●
남해

- 42 | 산해
- 46 | 남해구판장
- 50 | 크롭

動
●
김해

- 56 | 서핑할래
- 60 | 영결식

學
●
하동

- 66 | 아름다운봄
- 72 | 이런책방
- 76 | 하동책방

●
경남 관광 정보

- 84 | 노노이즈투어
- 90 | 청년센터
- 102 | 전시 정보

NUTS STORY

NUTS의 두 번째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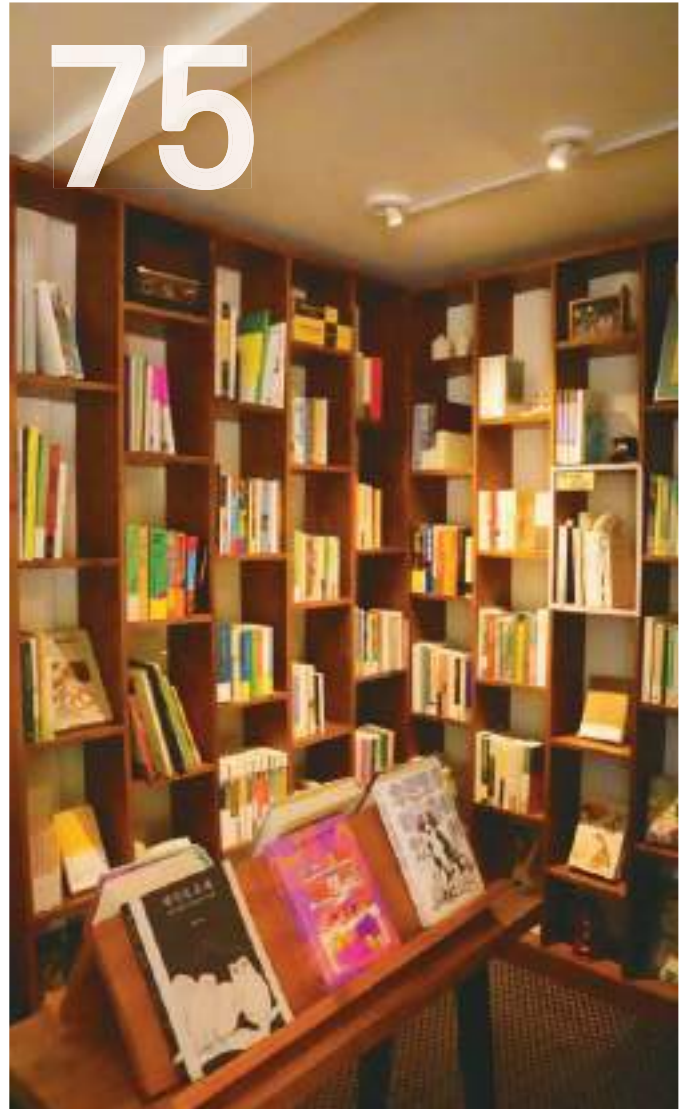
매거진 NUTS의 두 번째 발행을 기다려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호를 준비하며, 사회와 지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공동체를 찾고, 그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NUTS는 계간지에서 연간지로 발행 주기를 변경하여, 더욱 알찬 콘텐츠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매거진이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콘텐츠를 활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는 이들에게도 가치와 편의, 그리고 이익을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길 꿈꿉니다. 앞으로 NUTS가 담아낼 이야기는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아갈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경남의 살아 숨 쉬는 로컬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땅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순간들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비록 지역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언젠가 다른 지역과 길 위에서도 NUTS가 발견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들이 NUTS가 나아갈 다양한 방향과 가능성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열중하고 몰입할때, 혹은 미친 듯이 사랑할 때 느껴지는 그 달콤한 열정을 글로, 그림으로, 매거진으로 담아 독자 여러분께 긍정적인 영향을 전하는 브랜드가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NUTS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 **NUTS** 제작진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 日常(일상).
하루하루가 새롭고 재밌었던 우리는 언제부터 인가
어제와 오늘 구분 없이 똑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
NUTS는 하루를 보내는 설렘을 다시 한 번 더 선사하고자 한다.

NUTS 의 두번째 주제

일 탈 日脫

경상남도에서의 일탈

일탈의 범위와 기준은 저마다 다르다.

누군가는 맛있는 것을 먹으며 좋아하는 영화를 볼 수도, 또 누군가는 바람을 맞으며 거침없이 자연을 뛰놀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하루의 가치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행위다.

美 歌 味 動 學
(아름다울 미) (노래 가) (맛 미) (움직일 동) (배울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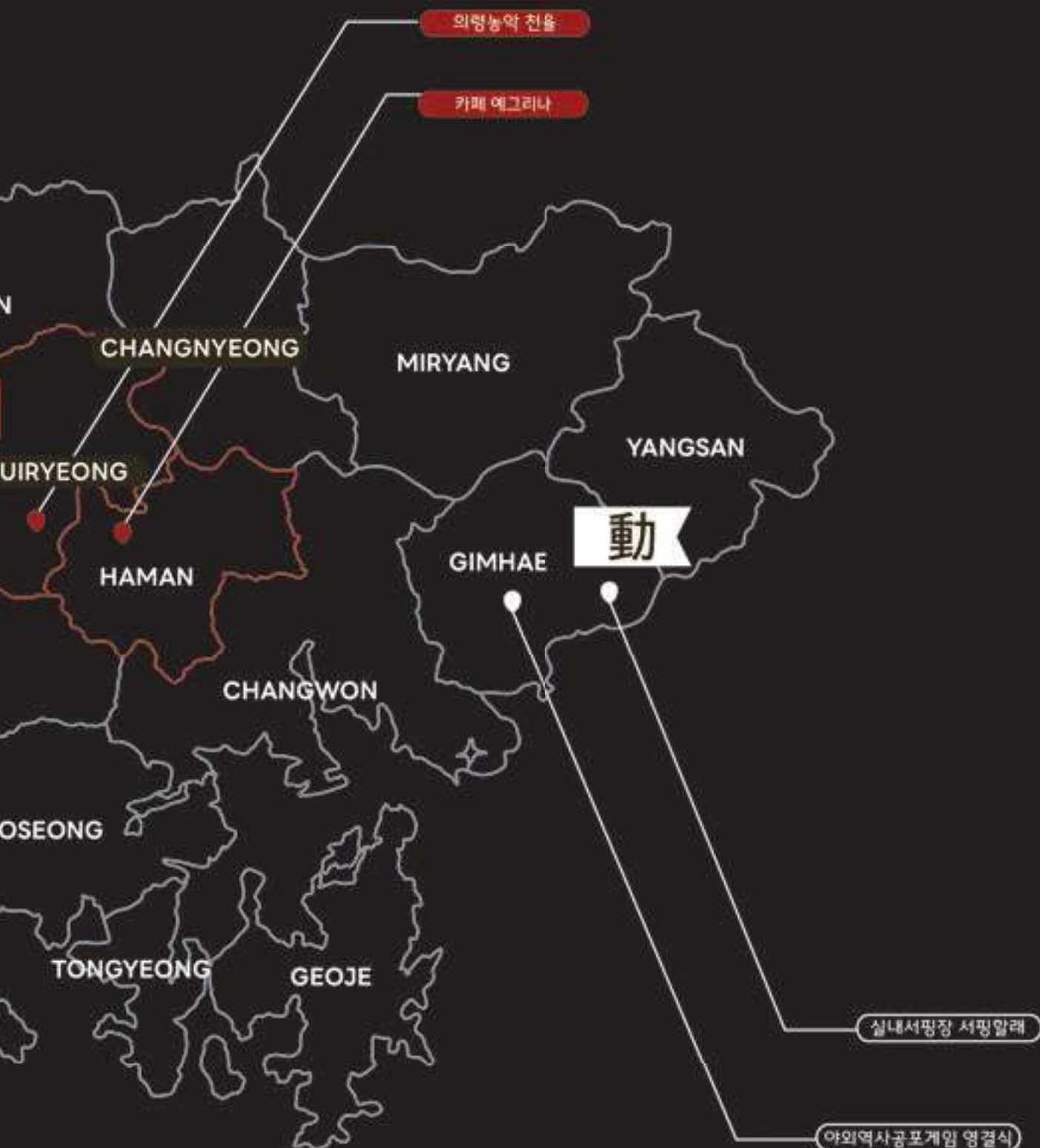
본 매거진에서는 행위의 기준을 크게 “歌, 味, 動, 美, 學” 다섯 가지로 좁혀 보았다.

경상남도에서 즐길 수 있는 다섯 가지의 일탈을 소개 함과 동시에, 이 일탈의 즐거움이 당신의 일상이 되길 기원하는 바이다.

경상남도에서 즐기는

日脫지도





진주





美

나를 가꾸고, 돌본다는 것은
가장 필요한 일탈이다

NAIL ARCHIVE

네일 아카이브

진주시 에나로175번길 12
@_nail.archive

"저는 사진 한 두 장 찍고 그냥 끝나요.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해서 손에 올라왔을 때 그 느낌 그대로 보정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인스타에 올려요." 그리고 제 피드를 보면 짧은 손톱이 많고 파츠도 없어요. 컬러들도 자연적인 컬러를 많이 들여놓고요. 하얗고 길쭉한 화려한 손들만 있는 곳들에 비해서 예쁘진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저희 샵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어떤 손이 와도 모두 사진을 찍어 올려요. 다양한 직업의 손님들이 계시거든요. 농부, 미술학원 원장님 등과 같은 분들은 손을 험하게 쓰시니까, 굳은살도 많고 상처가 있기도 하세요.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시지만 그래도 그냥 찍습니다. 그게 제일 예쁜 거거든요 제게는. 말 그대로 손을 그저 기록하는, 네일 아카이브 입니다."



선생님만의 색깔이 묻어나는 디자인들이 너무 예뻐요!

진주에 없는 스타일을 많이 도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 피드에 있는 디자인들을 보시고 하나씩 해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원하는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오셔도 좋아요. 다양한 디자인을 해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를 계속 연습하게끔 만들어 줘서 뭔가 레벨업 하는 느낌이거든요.

다른 네일 샵과 차별점이 있나요?

네일샵이라는 느낌을 많이 건어내고 싶었습니다. 네일 샵에 온 것보다는 그냥 친한 친구 만나러 와서, 편하게 얘기하다 네일 받고 가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네일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열된 컬러들도 밑으로 많이 뺐고, 인테리어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일 아카이브만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저는 디테일을 중요시 여겨요.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해요. 웬만하면 모두 손으로 그리려고 노력합니다. 간단한 스티커로 대체해도 될 부분들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네일 테커의 역량을 다 써서 그려드리고 있어요.



고객분들과의 소통에 있어 신경 쓰시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제 성향이 누군가가 또,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소통하는 것을 좋아해요. 어떤 손일까, 어떤 일을 하실까, 그거에 따른 새로운 얘기를 하는 시간들이 재밌고, 고객분들도 저랑 대화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세요. 왜 가끔 오히려 애매하게 아는 사람과 얘기하는 것이 더 편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앞으로의 가게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나이 때문이지는 몰라도 저를 받아주는 곳이 많이 없었어요. 20대 후반 조금 늦은 나이에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가게를 오픈부터 해버렸죠. 이후에 샵을 확장하게 된다면, 시작의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샵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서론이 너무 좋아요. 이 일을 시작한 덕분인 것 같아요. 이전에는 직장을 다녔었어요. 그만두고 이걸 준비하는 틈 동안, 20대 후반에 직업이 없어도 되나 겁도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언제 그런 걱정들을 했냐는 듯, 짝 사라지고 한 해 한 해 가는 것이 기쁘고 기대가 될 정도로 좋습니다. 동네 분들도 너무 다정하시고, 잘 챙겨 주세요. 왜 이렇게까지 챙겨주세요 이러면, 그냥 너무 예쁘잖아 이러고 가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 채워지면서 다채롭고 따뜻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고 제 서론이 너무 좋아졌어요,

semiere

새미에르

렛미에르라는 프랑스어가 있어요. 빛을 뜻하니까 단어입니다.
주얼리를 만들거나 구매하시면서 새로운 당신만의
빛을 찾아나갔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새미에르입니다.



Q. 새미에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저는 반지 공방으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고, 제가 만든 주얼리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지는 단순한 장식이나 기념품을 넘어서 개인의 개성과 감정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중요한 상징물이에요. 사랑과 약속의 의미가 담긴 결혼반지나, 가족의 유산으로써 세대를 잇는 가치가 담겨있는 등 각자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죠. 동시에 착용자의 독특한 미적 감각을 뚜렷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스토리를 전달해 주는 매개체가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밖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손에 주얼리가 없는 적이 없을 정도로 저는 주얼리를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사서 끼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직접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대학 졸업 후 본격적으로 배우고, 자격증도 따면서 지금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판매를 하다, 주얼리 공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랑 대화하며 수업하는게 너무 재밌고, 주얼리의 매력에 빠져 현재의 공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한 번씩은 너무 재밌어서 중간에 막 뛰쳐나가 카페 가서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것이 어울릴지 고민하고 계시면 옆에서 열심히 추천도 해드리고요. 행복할 수 있는 공방 환경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매 안 하셔도 된다. 심심하면 들어와서 잠깐 얘기하며 놀다 가셔도 된다고도 말해요. 새미에르를 생각하면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공방을 운영하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어떻게 있나요?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제일 우선시합니다. 원데이 클래스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고 설레는 마음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고객분들의 설렘을 끝까지 책임지고, 만족도 경험을 높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통을 끊임없이 하는 편이에요. 요구사항이나 어떻게 만들고 싶더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요. 덕분에 고객분들도 만족을 많이 하시고, 입소문을 타 친구, 지인분들이 또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시면서 재방문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으로 공장에서 뽑아내는 것은 결국 가격 비교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점차 싼 것만 찾게 되고, 점차 차별성도, 메리트도 없어지죠. 시간이 날 때 면 계속해서 새로운 주얼리를 개발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사입 제품보다 새미에르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선보였을 때, 손님들이 구매해 주시고, 더욱 좋아해 주시면 저도 그게 훨씬 뿌듯해요. 뿐만 아니라 품질, 정기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클래스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 자체가 오래 착용하는 아이템이니까, 정밀한 기술로 작업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만족하고 기억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고자 합니다.

왁스카빙

왁스를 깎아 나온 모양 그대로 은으로 뜬다.
손수 깎은 모양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반지다.
자신이나 서로의 지문을 새길 수도 있다.





Q. 진주에서 공방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진주에서도 지역 예술가 창작활동을 많이 지원해 줘요. 예술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촉진 시키고자 많은 지원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홍보하고, 전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아서, 관심을 가지시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Q.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 디지털 마케팅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진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미에르라는 주얼리를 알리고, 나아가 브랜딩화를 시키고 싶은 생각이 큼니다. 새미에르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핵심 가치를 명확하게 정의해서 대중들에게 선보이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시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스토리까지 전달 할 수 있는 주얼리 브랜드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딱 보면 새미에르 반지다,



메이다 베일 maidavale

진주시 예니로175번길 12

@maidavale1014





메이다 베일의 향수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향수를 시향했을 때 너무 아름다다, 이런 향수는 처음이야 같은 향수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냥 좋다, 괜찮은데 같은 일반적인 향수보다 감탄사가 나오는, 마치 영혼이 담겨 있는 향수를 만들고 싶어요. 저희 향수는 자연적인 향을 많이 품었습니다. 진하고 강한 인공적인 향보다는 스쳐 지나가는 향을 추구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며 자연에서 맡았던 향들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향들을 최대한 표현하여 남기는 것이 저의 지금을 포함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원래 관련 전공이셨나요?

원래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요즘에는 패션쇼에서 모델들이 런웨이를 하면 그 옷에 관련된 향도 함께 풍기면서 나오거든요. 이제는 패션 하면 향수도 땔 수 없는 관계가 되었는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좀 더 파보자라는 욕심이 어느 순간 생겼어요. 근데 이 분야가 공부해야 될 것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향수에 대해 관심이 기울어 향수 공방까지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공방을 운영하시는 데에 있어 방침이 따로 있으신가요?

고객님들이 여기 오셔서 힐링을 많이 하고 가십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저희 공방의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서 정신적 건강과 힐링을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겨요. 소통은 곧 향수의 퀄리티와도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 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 향수란 무엇인가요?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거든요. 예전에 영국에서 처음 축구장에 들어갔을 때의 그 잔디 향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함께했던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선수들, 옆에 같이 응원했던 친구들, 모든 향들이 저에겐 강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향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 시켜주는 브릿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들, 사람들, 추억들을 상기시키고 이어주는 역할이요.

앞으로의 공방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향수가 현재는 유럽 쪽이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K 뷰티에 힘입어 향수 산업 또한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는 데에 있어 일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선 목표도 저에게는 중요하지만, 일단 지금은 이 순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부지런하게 공방을 운영하는 것이 현재로서의 모토입니다.



歌人

함안 의령

음악은 가장 쉽게 우리를 일탈의 범위로 이끈다

예그리나

YEGRINA

경남 함안군 칠시면 계내1길 62-3
@lpcafe_yegrina

가게에 들어서면 한 벽면을 가득 채운 LP판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그 사이로 돌아가는 턴테이블 두 대와 앞에는 각종 음향 기기들이 늘어서 있다. 스탠딩 마이크 또한 있는 것을 보니 가끔 누군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다. 폭신한 가죽의자에 꽃무늬 병풍, 사이사이 푸른 식물들이 마치 70~80년대로 돌아간 것만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턴테이블에서 돌아가는 LP판에선 옛 음악이 흘러나오고 인상 좋으신 사장님이 따뜻한 박하차를 내주시는 이곳은 LP 카페 예그리나다.

가게에선 The Total BLUES Collection 음반이 돌아가고 있다. 블루스의 고전이라 불리는 곡들을 커버한 앨범이다. I'D RATHER GO BLIND (JORDON/FOSTER)가 흘러나온 뒤 그다음에는 RED HOUSE (HENDRIX) 전주가 흐른다. 낭만의 시대로 돌아간 것만 같다.

음악을 선정하시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날마다 제 기분에 따라서 음악 장르를 바꿔 판을 틀어요. 오늘은 비가 좀 많이 오고 껍뻍하게 저기압이다. 아니면 날이 맑다. 날씨에 따라, 시간에 따라, 내 컨디션에 따라 매일 달라요. 손님들이 요청하신 음악도 틀어드리고, 흥이 나면 손님이나 내가 노래도 부르곤 합니다.

LP판을 모으신 계기가 있나요?

은퇴 후 5년 동안 본격적으로 사다 모았지만, 그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위에 누나, 형들이 네 명 있었습니다. 그 누나, 형들이 모두 음악을 좋아해서 같이 라디오도 듣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LP판도 직접 사다 듣고 자연스럽게 접했어요. 당시에 시내에 영화 보러 가면 그 영화관 옆에 레코드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레코드음악을 샀었죠. 누구랑 갔느냐도 중요합니다. 그 때 산 LP판을 들으면 같이 간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런 추억이 재밌어요. 선물 줄 때는 자기 사인 이랑 간단한 멘트도 적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LP를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기타가 여러 대 있는데 직접 연주도 하시나요?

학창 시절 때부터 기타를 쳤어요. 집 바로 밑에 작곡가 김영광씨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타를 배웠어요. 중학교 때는 제 제자가 10명이 넘었습니다.

학창시절 부터 쪽 음악을 해오신 건가요?

대학 갈 때는 조금 포기했어요. 이후에 결혼도 하고, 아이 키우고, 직장생활 한다고. 그러다 은퇴하고 집에 쪽 있으니, 너무 심심한거 있죠.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예전의 꿈을 이루고자 예그리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벌이는 그냥 세내는 정도. 또 레코드판 한두 개 사고, 고장 나면 수리하고 그 정도만 벌면 됐어요. 그제 손님이 음악 잘 들었다, 차 맛있게 먹고 갑니다 하면 너무 행복해요. 같은 음악 취향의 손님들과 얘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사는 이야기도 하고 재밌어요. 기타 레슨도 합니다. 저는 음악이 좋아요. 더 나이 먹어도 좋아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해 대해서 말씀 부탁 드려요.

음반 좀 더 다양하게 모으고, 음향기기도 업그레이드하고, 노래 공부 많이 해서 손님들한테 더 좋은 음악 들려주고 싶어요. 제 기타 실력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연주도 해드리고요. 그렇게 같이 어울려 노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다음 목표입니다. 요즘은 여유와 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조금은 잊고 쉬고 갔으면 좋겠어요.



히트는 치지 않았지만, 숨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래들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존재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휴대전화로 그런 노래들을 금방 찾지만 예전에는 이 LP 음반에서 찾았습니다. 보통 앞뒤 한 10곡 정도 있는데, 밀어주는 노래가 젤 앞에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가끔 세네 번째에 있는 음악들이 뜨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LP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명곡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손님들이 와서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면, 그 노래가 있는 음반 전체를 앞뒤로 들어 보셔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처럼 명곡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 앨범 순서 자체를 즐기기도 합니다. 또 이유 없는 순서는 없거든요.



“음이 12개인데, 그 사이에 박자라는 것을 넣어서 길었다 좁았다, 켜다 약했다, 그것으로 수십수만 곡을 만들잖아요. 대단해요. 음악은 진짜 대단합니다.”



천율

송진호 대표

의령집들금과 신반대광대는 어떤 음악인가요?

집들금 농악은 의령의 전통 농악입니다. 지역마다 전통 농악이 다 있거든요. 집들금은 금자가 쇠 금자인데, 집을 돌면서 돈을 모았다는 뜻으로 집 집마다 돌며 복을 빌어 주고 나쁜 것을 쫓아주는 의미를 가진 농악입니다. 또 모은 돈은 공동기금으로 쓰였습니다.

신반대광대는 조선 3대 예술단체 중 하나예요. 의령의 신반대광대, 진주의 솟대쟁이패, 그다음에 가장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서울의 남사당패. 이렇게 당시 조선의 3대 예술단체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JYP, SM, YG 같은 거죠. 저희 할아버님이 다 계셨던 단체고 제가 명맥을 이어받아 전승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반대광대의 뜻은 신반이라는 지역과 대광대는 명칭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의령군의 신반이라는 곳에서 대나무 광대들이 놀았다 해서 대광대인 거죠. 진주의 솟대쟁이는 말 그대로 솟대를 세워 놓고 놀았다, 서울의 남사당패는 남자들이. 이렇게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죠. JYP 박진영처럼, 조선식의 표현입니다.

국악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 전수하고 계시는데,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실력이 물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하지만 저는 실력이나 인물 등 저보다 출중하신 선생님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 던져서 이걸 하고 있는지, 몰입도에 대해 비중을 많이 두는 편입니다. 공연을 하게 되면 그 몰입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진짜 이 음악을 사랑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더 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문화유산 명장으로 선정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되게 좋고 기쁩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게감 또한 더욱 생기기도 했습니다. 명장이라 함은 지금까지 잘 전승해 왔고, 앞으로도 잘 전승해 가라는 뜻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의령군의 국악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세대를 이어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온 것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이 좀 더 생기게 된 계기가 분명히 되었지만, 앞으로도 본분에 맞게 잘 이어가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또한 생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cheon.yul1144

전통 국악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에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의 사회적 위치나 명예 비슷한 것들이 깃털같이 가볍지만, 조금씩 이나마 올라가며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예전엔 이렇게 좋은 음악을 왜 사람들이 몰라주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까 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드는 생각은, 어떤 분야든지 간에 대중들의 사랑을 양껏 받는 때가 있는데, 국악이 지금은 그 때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면 국악을 알릴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것에 완전히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저 좋은 음악을 계속 해서 해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이 장르가 유행을 빠르게 쫓아가기엔 비교적 힘든 음악이고, 지금처럼 그냥 제 자리에서 함께 열정을 쏟아주시는 분들과 호흡을 맞춰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때가 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든 잘 버텨서 꾸준히 음악을 하고 싶은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통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작 또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현대음악과 국악을 접합하는 등 기존의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다양한 표현을 해보는 거죠. 또 유튜브나 다른 SNS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쇼츠, 릴스를 보면 몇 초도 되지 않는 시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 잡고는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대중들에게 조금이나마 국악을 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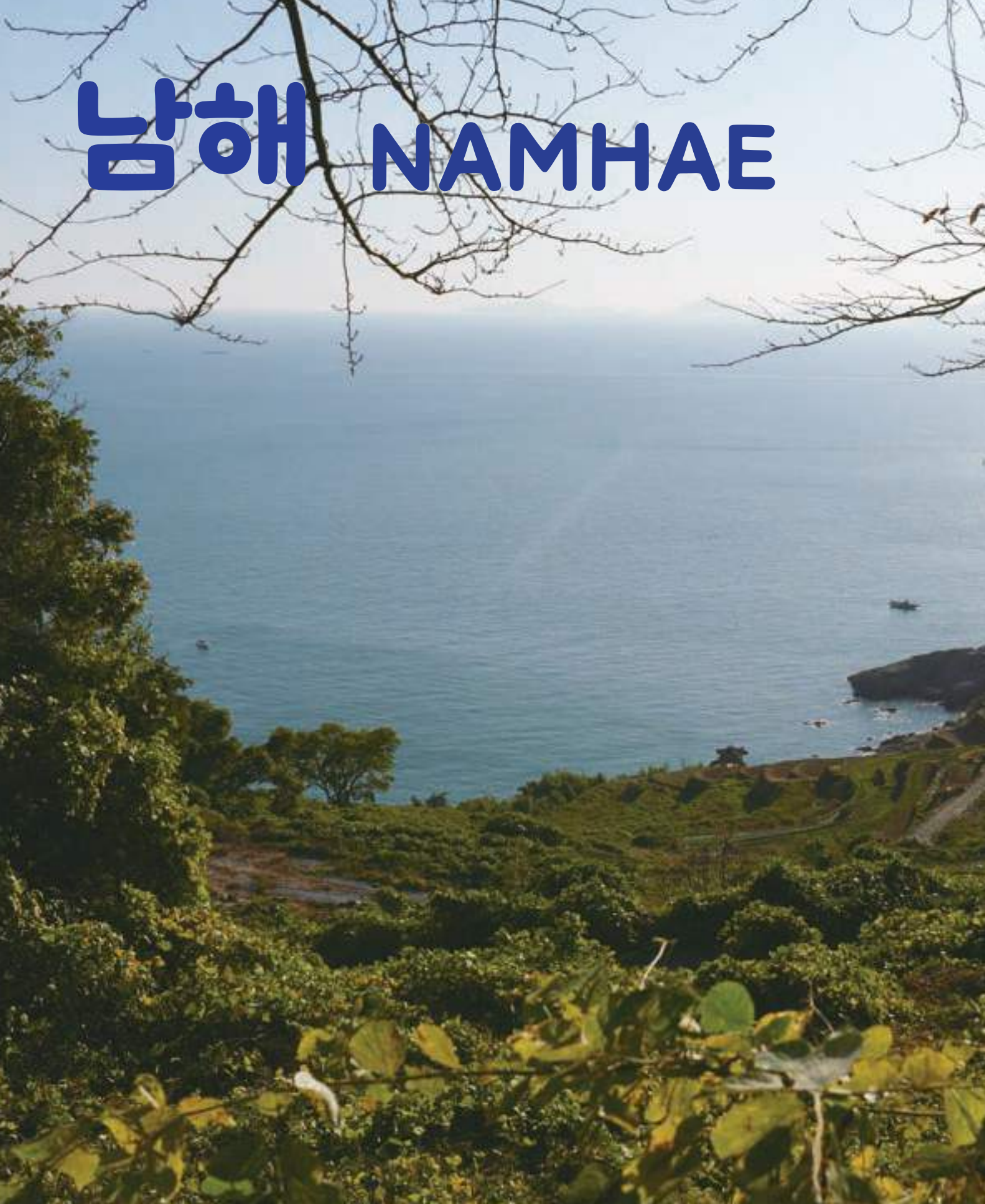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의령집돌금의 매력을 한 가지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의령의 농악은 다른 지역보다 합동으로 하는 진법이 많아요. 개인적인 기량도 중요하겠지만 협동과 공동체 의식을 되게 강조하는 음악이거든요. 예전에 나라가 어려울 때 광재우 장군도 자발적으로 의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의지와 정신을 같이 가지고 있는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의 포인트는 어찌 됐든 같이 협동하고 같이 웃으면서 공동체 정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의 매력이자 장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남해 NAMHAE





음식이 주는 일탈의
포만감이 가장 중독적인 법이다

味



남해 다랭이마을 농가맛집

산해 SANHAE

남해군 남면 남면로 679번길 15-1



“요 앞 다랭이논이랑 바다도 너무 예쁘고, 밤에는 커다란 배들이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앞에 보이는 여수의 야경이랑 어우러져서 엄청 예뻐요. 하늘을 쳐다보면 공기도 좋고, 별들이 수두룩해서 정말 그림 같지.”

바닷가 언덕 따라 계단을 그리며 만들어진 다랭이논으로 유명한 다랭이마을. 마을 안으로 구불구불 들어가다 보면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그마한 식당이 나온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당인 ‘농가 맛집’은 남해 군에는 단 세 곳뿐이다. 그중 다랭이 마을에 위치한 농가 맛집 산해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다랭이 마을 분들이 농사 지은 거로 될 수 있으면 음식을 합니다. 시금치, 마늘 이런 거는 제 동생이 심어서 하고, 저희 텃밭에도 쪽파, 상추 등 여러 작물을 심어서 직접 재배해 손님 상에 내드리고 있어요.



톳문어 솔밥정식 ▶

Q. 해산물 같은 경우는 어떤 경로로 구하시나요?

미역, 톳, 해초 다 여기서 나는 거예요. 깊이는 못 해도 제가 잠수복 입고 웬만한 것은 다 따옵니다. 물때가 있는데, 밀물일 때는 오전 장사하고, 물 많이 빠질 때는 문 잠깐 닫아 놓고 따라 가요. 딱 다음에는 머리에 얹어 바닷길 따라와야 되는데 물어 먹어 무겁습니다. 그래서 갯바위에다 2~3일 말려 놓으면 바닷물이 빠져요. 그걸 지고 와서 집에서 한 번 더 말려요. 바짝. 그렇게 1년 동안 저장해놨다가 미역국 끓이고, 솔밥 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푸짐하게 드리고 맛도 있어요.



멸치 이런 것들은 직접 못 구해도, 옆 경매장 가서 그날그날 아침에 문어 사 오고, 요 앞에 잡히는 갈치 사서 활짝 벗겨 회 무치고 해요. 해서 겨울에는 회무침이랑 톳문어 솔밥, 해물장이랑 솔밥 하고, 멍게는 봄이 제철이니까 봄에 해초 멍게 빔밥 해서 밥은 이렇게 딱 3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국수랑 부침개 하는데, 국수 빼는 거는 기계로 빼도 반죽이랑 제가 직접 다하고, 부침개는 계절 철 마다 부추, 파 다르게 해서 홍합이랑 새우 넣어서 맛있게 합니다.

◀ 노랑해전 (부침개)

Q. 가게를 운영하시는 데에 있어 사장님만의 철칙이 있나요?

제 손으로 직접 농사짓고, 따와서 직접 요리 해요. 밀반찬, 김치뿐만 아니라 간장, 된장 같은 것들도 다 직접 담고 정성으로 항상 만들죠. 저희는 테이블 수가 적기도 해서 손님들을 많이 못 받아요. 대신 오셔서 편하게 집밥 먹듯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식구가 먹는다 생각하고 손수 내드리고 있어요.

그냥 이대로 꾸준히 변하지 않고 장사 할 겁니다. 잘 된다 해서 대강하지 않고 처음 마음 끝까지 깨끗하고 친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남해 바다 앞 분식가게

남해구판장

경남 남해군 시면 남시대로2197번길 77

NAMHAE SNACK

학창 시절 학교 앞 친근하고 다정했던 분식집이 떠오르는 추억의 떡볶이. 순해 보이지만 불향이 진하게 나는 달콤 매콤 유부초밥, 해물 가득 욕심 많은 라면, 시원 뜨끈한 오뎅탕. 그 외에도 귀여운 피카츄 돈까스와 닭강정, 튀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 한 켠에 자리 잡고 있는 남해 구판장을 찾아가 보았다.



Q. 식당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개인 사업 운영과 직장 생활을 계속하다가, 좀 쉬고 싶어서 고향인 남해로 6개월 정도 쉬러 왔었습니다. 그러다 남해 생활이 너무 좋아져서 조금 더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1년 정도 더 살다가 수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오랫동안 비어있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지금의 남해 구판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namhae_snack





Q. 구판장은 어떤 뜻인가요?

구판장은 경남 해안가 지역에서 쓰는 말인데요. 과자도 팔고 술도 팔고 전도 팔고 하는 동네 슈퍼마켓, 매점을 의미하는 곳이에요. 사람 사는 소리가 날 수 있는 사랑방 같은 느낌의 가게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구판장이라고 지었습니다. 가끔 앞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진짜 구판장인 줄 아시고 술이나 담배를 사러 오세요. 또 종종 해안가 따라 산책하시는 분들이 매점이신 줄 알고 물도 사러 오시구요. 식당 운영에 좀 더 집중하고 추후에 매점을 함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Q. 앞에 컨테이너 하우스는 어떤 공간인가요?

앞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함께 지었습니다. 지금은 여름에 민박으로 내주고 있는 공간인데 예쁘게 잘 꾸며져 있거든요. 이후에는 여기서 농산물이라든지 관련 굿즈라든지 남해에서만 살 수 있는 소소하게 기념 할 것들을 판매해 보고 싶어요.

Q. 건물이 꽤 오래되 보이는데,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인테리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 집을 활용해서 어떤 업종을 할지 정확히 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이 마을이랑 어울리고 동네 분들이 편하게 방문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화려한 느낌보다는 한적한 동네 분위기에 맞춰 조용하고 꾸미지 않은 느낌의 가게를 한번 운영해 보자 해서 이 공간을 짓기 시작했죠.

그렇게 가게 운영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시작했는데, 너무 옛날 집이다 보니까 업체에서 견적을 내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견적도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저희가 조금씩 해볼까 하다가 직접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의 집 부분들을 살리기도 했고, 또 저희가 손수 하다 보니 좀 더 자연스러운 공간이 된 것 같아서 좋아요. 저희만의 공간과 인테리어라는 것이 저희에겐 꿈만 같은 일이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처음엔 되게 묻혀 있었어요. 안에는 생활 폐기물 더미에 주변은 또 엉망이었고. 일단 치우고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었는데, 그러면서 도시에서 힘들고 지쳤던 마음도 정리하는 기분이라 치유 또한 되었던 것 같아요.

Q. 도시에서의 삶보다 지금 생활을 훨씬 즐거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서 떼돈을 벌겠다는 것 보다는 그냥 여기 남해에 살고 싶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자 했으면 도시로 나가서 벌었겠죠. 자연에서 아이들과 자유롭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도 컸고, 또 여기 오고 나서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았거든요. 도시에 살면서 항상 일에 치이고 밥도 대충 먹고 그런 갑갑한 생활을 하다가, 여기 온 뒤로는 조금 힘들고 그럴 때는 근처 바다에서 바람을 쐬며 마음을 가라 앉히기도 하면서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에 정신없이 바빴던 삶과는 비교도 안 돼요.

아이들도 정말 밝아졌어요. 아파트에 살면서 항상 안돼 라는 말을 달고 살며 주의를 줬었는데 지금은 그냥 마당에 나가서 호기심 많을 나이니까, 벌레도 잡으러 다니고, 꽃도 보러 가고, 바닷가 나가서 모래도 만지고 해요. 이런 것들이 또 도시로 가면 일부러 시간 내고, 돈 내고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다 무료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뭐든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남해의 농작물로 만든 특별한

크롭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030번길 80 화이트캐슬 펜션

Cafe crop

@crop__cafe



Q. 남해 특산물을 이용해 음료와 디저트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남해 하면 유자를 많이 떠올리지만, 유자, 마늘 외에도 정말 맛있는 제철 농작물들이 남해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카페에 오셔서 ‘이런 유명 농작물들이 남해에서 재배되고 있구나’를 느끼시고, ‘이렇게도 만들어서 먹을 수 있구나’ 하며 맛보고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방문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시는 메뉴가 있나요?

추천하는 메뉴는 직접 만든 빵에 직접 만든 소스와 재료들이 올라간 갸빠뉴 오픈샌드위치, 재료들이 가득 들어있는 포카치아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 안에 발려지는 페스토, 소스, 잼들은 계절에 따라 바뀌며, 시즌마다 다양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빵만 주문 시에도 제철 잼과 페스토가 함께 제공 됩니다. 이번 겨울은 시금치 페스토와 갈릭디핑소스를 만들어 함께 제공 중입니다.

저희는 남해에서 재배하는 밀로 만들어 낸 ‘남해산 밀가루’를 사용하여 15시간 이상 저온 발효 후 빵과 디저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시간 저온 발효한 빵은 풍미도 더 좋고 소화도 잘되어서 편하게 드시기 좋습니다.



Q. 시기별 제철 작물에 따라 메뉴가 바뀌기도 하나요?

크롭에서는 계절에 따라 음료와 디저트를 바꿔서 판매합니다.

봄에는 시금치, 두릅, 유자, 마늘,

여름은 블랙베리, 마늘쭀, 방아, 밤호박, 마늘, 양파, 감자,

가을은 무화과, 방아, 단호박, 고추,

겨울은 토마토, 고구마, 시금치 유자 등을 사용하여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메뉴를 만듭니다.



저희 카페는 물건방조어부림과 가까워 계절에 따라 숲과 바다가 변하는 풍경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가을에는 알록달록하게 색이 변해 예쁘고,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져 물건리 해수욕장과 방파제가 흰히 보여 좋습니다.

Q. 향후에도 남해 제철 특산물을 활용할 예정이신가요?

앞으로는 더 많은 지역 농민분들과 협업을 해서 다양한 메뉴와 음료를 만들어 제공하고 싶습니다.

협업이 된 경우, 남해 제철 농작물만 따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봄에는 두릅, 여름에는 밤호박을 예쁘게 패키징하여 판매했었는데, 반응이 좋아 앞으로도 남해를 알릴 수 있는 더 좋은 농작물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소량이 아닌 더 많은 양과 다양한 농작물을 원하신다면 지역 농민께 직접 구매를하실 수 있게 연계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 농민과 연계해서 남해의 농작물들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힘쓸 것이며, 다양한 농작물들을 이용해 계절마다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김해





움직임의 일탈은 가끔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곤 한다

動



추운 날에도 비오는 날에도

실내 서핑장 서핑할래?

시원한 파도소리 그리고 물살을 거침없이 가르며는 사람들의 열정이 가득한 곳.
실내 서핑장, 서핑할래를 방문해 보았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실내 서핑이 해외에서는 스포츠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장비 담당하시는 다른 공동 대표님이 있어요. 둘이 힘을 합쳐서 같이 실내 서핑을 알리고 규모를 키워보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내 서핑과 야외 서핑 어떤 점이 다른가요?

실내 서핑과 실외 서핑은 분명 다른 종목이고 타는 방법, 장비 모두 달라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 보드 길이보다 훨씬 짧은 보드를 탑니다. 해외에서의 보드들은 대부분 짧아요.

묘기를 부리려면 보드가 짧아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큰 파도가 없으니까 타기 위해서 점점 보드 길이가 길어지는 거죠. 실내 서핑은 파도의 세기를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짧은 보드를 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영도 필수가 아닙니다. 바다에서는 스스로 헤엄쳐 가야 되서 수영이 필수인데, 실내는 수영을 못하셔도 괜찮아요. 서핑 실력을 단기간에 향상시키려면 실내가 훨씬 나은 거죠.



김해 대동면 동남로91번길 15
@suhpinghalrae2s

실내 서핑의 장점들에 대해 말해주세요.

장점은 겨울에도 물 온도를 높여서 온수로 타기 때문에 추운 날이든 더운 날이든 365일 타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정상에도 실제 바다보다는 실내가 좀 더 위험성이 낮은 편이어서 어린 친구들도 제약 없이 쉽게 접할 수 있어요. 평일에는 성인분들이 많이 오시고 주말이나 방학 시즌에는 어린 친구들도 많이 와요. 단체로 시설이나 태권도장, 학교에서도 가끔 대관 하셔서 행사로도 찾아 주십니다. 또, 야외에서 서핑을 체험하거나 이용하려면 비용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흔하게 접하기가 좀 힘든데 실내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다 회차 배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실내 서핑을 배워두면 이후에 실외 서핑도 수월히 탈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종목이지만 실내 서핑을 잘 타면 실외에서도 훨씬 잘 타죠. 마치 스노보드랑 스키 같은 느낌이에요. 두 분야 모두 장비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 스키 타시는 분들이 보드 금방 타시는 것과 비슷하죠. 훨씬 잘합니다. 운동감각이나 방향성 같은 부분들이 아예 배우지 않은 분들하고는 다르니까요. 마찬가지로 실외 서핑이나 웨이크 보드처럼 물 위를 타는 운동을 하시던 분들도 여기 오시면 다른 분들보다 배로 잘 타세요. 물 위에서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원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거든요.



대표님께 서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서핑은 그냥 휴식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다른 산에서나 눈밭에서나 하는 스포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물에서 하는 것들은 시간 내서 가야만 하고, 보통 정말 자주 와도 한 달에 한두 번 밖에 못 오시거든요. 재밌게 타려고 왔든 쉬러 왔든 간에 서핑을 타는 순간만큼은 평소 힘들고 지쳤던 부분들에 있어 다들 심을 얻고 가시는 것 같아서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일을 하면서 즐겁고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 고 괴 전 서



야외 역사 공포게임

해가 어스름하게 저물고 있을 때 쯤 플레이 하면 공포가 두 배!
으스스한 야외공포 추리게임 '영결식'을 직접 플레이해 보았다.



<영결식>은 김해 봉황대 공원에 서려있는 지역의 구전 설화 “여의 낭자와 황세장군”이야기를 각색하여 만든 야외 방탈출 공포 게임이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키트가 배송되면 해당 키트를 들고 직접 봉황대 공원을 방문하여 플레이 할 수 있다. 키트에 기재되어 있는 큐알코드를 찍으면 본격적인 게임 화면과 함께 플레이어가 공원 곳곳을 누비며 플레이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끌어 준다. 낮보다는 밤에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 드리는 바이다.



어느날 당신에게 날아온 한 통의 편지...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긴 더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아직 신이 있다면, 이 편지가 당신에게 무사히 닿도록 살펴 주시기를...”

봉화대 공원에 나타난 악귀, 소문에 의하면 여행객들이 ‘이 곳(여의각)의 봉인’을 풀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봉인에서 풀려난 악귀는 사람을 해치기 시작하고, 이를 퇴마하기 위해 수많은 퇴마사들이 달려들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이제 남은 퇴마사는 당신 뿐이다. 과연 악귀를 퇴마하고 봉화대 공원을 구할 수 있을까?

게임 장소 : 김해 봉황대 공원

권장 인원 : 1개의 게임 키트 당 1~3명

소요 시간 : 1시간 30분 내외

권장 연령 : 15세 이상

난이도 : 보통





인절미투어 유한회사 ‘미스터절미’는 미스터리와 인절미를 합친 단어로, 인절미투어의 독특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인절미투어는 지역의 구전 설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한 야와 방탈출 게임을 기획하여, 참여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처럼 탄생한 인절미투어의 콘텐츠를 ‘미스터절미’라고 부릅니다.



〈영결식〉의 플레이 장소들 봉황대공원은 김해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유적지로, 봄, 가을에 특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너른 잔디와 아름다운 단풍이 유명하며, 동시에 가야시대의 유적을 만날 수 있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에게 인기있는 공간입니다.

‘영결식’을 즐기다 보면 만나는 기마무사상, 고상가옥, 여의각 등도 가야 시대와 ‘여의남자와 황제장군’ 속 의미가 있는 곳들이니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그 의미 또한 함께 살펴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동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 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탈인가

學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죠. 여기 책방을 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 장소예요.”

책방을 하게 된다면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여기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남해바다 쪽으로 내려와서 바람도 쉴 겸 우연히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여기 현관문에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하게 ‘임대’라는 글자가 그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보고 가게 밑에 있는 바다에 구경 갔어요. 그러다 올라오는데 또 ‘임대’라는 글자, 그 밑에 전화번호가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드리고 기존에 중국집이었던 가게를 새로 인테리어 해서 책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NAMHAE BOOKSTORE

아름다운 봄

@beautiful_spring_bookstore

이동군 금남면 제민당길 136

책방을 열게 된 계기가 있나요?

막둥이 봄이의 초등학교는 바닷가가 있는 작은 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직장을 알아봤는데, 아무도 저를 써주지 않았습니니다.

바쁘게 애들 키우며 일하고 살다 보니 이제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차에, 막연한 책방이란 꿈을 일찍이 이루게 되었습니다.

책방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올해 7월에 오픈했어요. 저희 책방은 신간 위주로 보통 진열을 하고 있고, 중고서적, 그림책, 또 경남의 지역작가 코너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책방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아이가 세명이이예요. 아람이, 다운이, 봄, 아이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책방입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꽤 넓어요. 바다도 보이고 너무 좋아요.

지나가는 분들이 와서 편하게 책도 같이 읽고, 모임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 공간을 만들게 됐어요. 요즘에 책을 직접 사 보시는 분들이 잘 없잖아요. 접하기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어떤 책들은 제가 신간을 직접 구매해 읽은 후 중고로 만들어서 배치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냥 편하게 읽고 가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 하셔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림책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삼남매를 키우며 계속 일도 같이 했기 때문에 쉬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나름 힘이 들었었죠. 그럴 때마다 갔던 곳이 집 근처 도서관이었어요. 아이한테는 그림책 한 개 주고, 저는 제 책을 봤는데 저한테는 그게 힐링이었어요. 어머님들이 여기와서 아이들과 맘 편히 책을 읽으면서 쉬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림책도 많이 놓고 있습니다.





삶은 롤러코스터 같아요. 올라갈 때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내려갈 때도 있고.

제가 20대 때에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갑작스레 내려가는 일이 닥치면 해결 방안을 잘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게 어려웠어요. 다른 친구들이 힘들다 찾아와 얘기를 하면 들어주고, 또 그걸 좋아하기도 했지만, 막상 제가 입을 떼려고 하면 선뜻 좋은 얘기도 아닌데, 괜히 삼키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책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어요. 제 문제에 관련된 책을 찾아 읽다 보면 세상엔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구나 많이 깨달아요. 그럴 때 해결방안을 찾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그랬죠.



책은 저에게 있어 약이에요. 누군가 속을 썩일 때, 정신이 산만 할 때, 인생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도, 책을 읽으면 마음이 치료가 되곤 하죠. 저는 약 먹는 것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정말 통증이 심해서 무조건 먹어야 되겠다 싶을 때까지 약을 어려워해요. 근데 책은 제가 제일 쉽게 먹을 수 있는 약이에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쉽게 접근도 가능하고, 부작용도 없잖아요.



이런 책방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176

justlikethis_books

다섯 명의 사장님이 운영하는 ‘마을 공방 두니’에는 카페, 식물 공방, 바느질 공방, 차살림 도구를 판매하고 다양한 공예체험을 할 수 있는 공방이 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자리잡고 있는 3.3평의 작은 책방. 이런 책방이다. 다섯 분 중에 한 분의 사장님을 만나 보았다.



“우리 다섯이서 진짜로 하고 싶고 재밌는 일이면서도 서로 도울수 있는 일을 의견이 맞으면 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작년 1월부터 책모임을 하게 된 계기로, 공통 관심사를 찾으면서 책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같이 여기서 즐겁게 상생하면서 보람을 느껴보자라는 생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독립 책방들과의 커뮤니티 부분이나, 아니면 지역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이점을 제공 드리고 싶다는 취지를 가진 작지만 굉장히 야무진 꿈을 가진 책방입니다.

Q. 책모임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편식을 좀 했어요. 그림책 작가였기 때문에 그림책 위주 또는 관련된 이론서만 자주 읽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책들은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책을 한 번 읽어보자 그런 생각에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책은 너무 읽기 어려웠어요. 진짜 내팽개치고 싶은 책들이 있었는데 나는 이 책에서 별로 배운 것이 없다, 느낀 것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책모임을 나가면 이 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발견한 얘기들을 듣게 돼요. 저는 그냥 스쳐갔던 구절,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이 의미 있게 해석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이 책의 장점들을 발견 하게 되죠. 책과의 소통을 나누는데 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물론 같은 의견을 나누며 공감을 하는 것도 재밌었어요.

Q. 이런 책방의 책 선정 기준이 있나요?

저희는 다섯 명이 점수를 매겨요. 이번에 50권 입고 할 거다 하면 다섯 명이 각30권씩 뽑아서 내용, 디자인, 대중성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1점에서 5점까지 쪽 매깁니다. 해서 상위 몇 프로만 입고하는 거예요. 어쨌든 책방 주인의 관심사가 반영되기 마련이라 조그만 공간인데도 다양한 장르의 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담당 주인이 바뀌니까 주인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저는 좀 무뚝뚝하고 낮도 가리고 해서 보통은 편하게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려고 자리를 비우는 편이고, 어떤 분은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세요. 오실 때 마다 다른 분이 맞이하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Q. 종종 책방에서 여러 이벤트 또한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여름〉이라는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하정 작가님이 올해 〈닭큐 멘터리〉라는 책을 출간하셨어요. 책의 글 작가가 거주하는 제주도의 서점과, 편집자가 있는 하동의 〈이런책방〉, 서울의 〈여름 맨션〉이 세 곳에서 각각 2주씩 릴레이 전시를 했었습니다. 다양한 닭 관련 아이템을 모으고, 책방 창 틀도 닭장으로 꾸미고, 포스터도 수제로 만들고 꽤 재미있게 진행 했었죠. 이런 작은 활동들을 연계하는 것이 작은 책방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연계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플리마켓이나 영화제를 하기도 하고 지난 1주년이었던 8 월에는 워터밤을 하며 생일 파티를 했었어요. 장식도 달고, 떡이랑 과일, 음식 등을 준비해서 마을 주민분들, 또 놀러 오시는 분들과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어떤 가수분이 도움을 주신다고 하셔서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는 책방을 오래 유지하면서 어떤 역할을 꾸준히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이 독립서점간의 커뮤니티의 역할이든 또는 마을 주민분들이나 대중들에게 조금이나마 문화적인 파급을 갖는 역할이든 간에요.



좁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책을 읽는 의자 하나 놓아서 개인 서재 느낌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편안하게 책 보시고 자리가 없으시면 밖에도 앉을 곳이 많아서 읽고 가시라고 하거든요.





하동 책방

이런 책방에서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한 하동 책방. 과거 학교였던 건물이 지금은 악양 생활 문화센터로 바뀌었다. 센터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책방으로 가고자 마당에 발을 들이면 드넓은 하늘과 함께 소설 토지 속 배경인 평사리의 풍경이 늘어서 있다. 토지속 최참판댁 별당 아씨와 구천이가 야반도주하던 능선도 보인다. 능선을 멎하니 보고 있자면 책방 앞 사장님이 웃으며 반겨준다.

"아침에는 구름이 짝 깔려서 너무 멋졌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 하동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웰컴 투 하동책방!"





Q. 하동 책방만의 재밌는 코너들이 많아 보여요.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하동 사람 내지는 하동 이야기를 담은 책 코너죠. 하동 출신의 이병주 선생님도 있고, 하동이 고향은 아니지만 하동서 정착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박남준 시인, 공지영 작가, 조문환 작가 등 말이죠. 그 분들의 책을 모아 놓은 코너입니다.

종이 약국

다음으로는 종이 약국이라고, 전국에 있는 작은 책방에서 앙케이트를 했어요. “독자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라고요. 조사 후 해당 주제들을 가지고 작가분들, 평론가분들에게 “우리 독자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책을 추천해 주고 싶습니까?” 여쭙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천받은 책들을 저희가 이렇게 분류를 해 놔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책을 스스로 선택해 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MBTI 유형별 책 추천 코너는 정말 인기 많을 것 같아요!

MBTI별 추천 책 코너는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제일 많아요. 해당 코너 외에도 재미있는 코너들이 많습니다. 하동은 차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차와 관련된 책 코너도 있고, 작가 사인이 남겨진 책 코너, 그 다음은 누군가 먼저 읽은 책들입니다. 어떤 사람의 손을 떠났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연결해 주는 곳이지요. 하동 책방에서만 구할 수 있는 소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책과 차와 사람이 만나는 곳

마지막 공간이 중요합니다, 차도 한 잔 하면서,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에요. 독서 모임도 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랑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동 책방은 책과 차와 사람이 만나는 곳이라고 저희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실제로 처음 오시는 분들도 같이 차 한 잔 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가세요.

지금 이곳엔 아이들이 사라졌지만, 어른들이 모여서 또 다른 배움을 이어가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강좌나 북 콘서트도 하고 있어요. 박남준 시인, 공지영 작가의 출판 기념회도 했었고,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나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독서 모임이나 배움도 얻고 갑니다. 책과 사람의 이야기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동 책방 로고 뜻은, 청학동 사람들, 섬진강, 벚꽃이 이어진 이 곳에서 책이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Q. 토지 책이 엄청 많습니다. 평사리를 보며 토지를 읽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책이에요. 토지가 올해 30년을 맞았습니다. 토지 20권 모두 일본어로 번역본이 나왔는데, 제가 한국어판 일본어판 모두 구매해 놓았습니다. 책방에서 한국의 독자와 일본의 독자들이 토지의 배경인 평사리를 바라보며 더 넓고 깊게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Q. 책방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세요?

늘 아침마다 행복하고, 풍족하고, 건강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항상 시작해요. 여기가 큰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많이 오세요, 하동에 대해 소개도 해드리고 책도 추천 드려요. 하동의 관광지뿐만 아니라 마을 이야기들도 해드리고요. 사람과 사람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곳이 그런 분들에게 또 하나의 치유 공간이었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서 모임이라든지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북 캠프나 작은 음악회, 영화제 이런 것들도 해보고 싶어요.



경상남도 관광정보

경남의 청년을 비롯해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 정보들을 소개한다.

경남 이곳저곳을 누비며 여행할 수 있는 투어,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유 공간을 담았다.

CHAPTER1.

고택재즈별밤 + 노노이즈 투어

CHAPTER2.

남해 청년센터 바라

CHAPTER3.

의령 청년복합커뮤니티센터 청춘만개





노노이즈 투어란?

노노이즈 투어는 음악과 함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이다. 특별한 점은 지역 거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무소음 헤드셋을 착용 후 투어를 즐긴다는 것이다. 2024년에는 통영, 남해, 진주, 함양, 거창 5개의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며, 2025년에는 경남의 다른 지역들을 대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3월부터 11월까지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고택재즈별밤이란?

고택 재즈 별밤은 노노이즈투어 내 프로그램으로 한옥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이다. 한옥마을의 경우 보통 거주민들과 숙박 고객들의 밀집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늦은 시간 음악을 크게 들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무소음 헤드폰을 통해 재즈 음악을 마음껏 들으며 한옥 고택의 정취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이다.



@lcll_coop

신청 홈페이지

<https://www.lccl.co.kr/>



숙소 안내

거창 황산리의 원학고가

한옥이 가진 생활의 불편함을 최대한 덜어내고, 장점은 그대로 살려
편하게 쉬고 머무는 공간 황산리 원학고가에서의 1박 2일



2024년도 거창 노노이즈투어 & 고택 재즈 별밤

“여유롭게 흐르는 물소리와 지저귀는 산새 소리, 시원한 풀내음과
고택이 머금은 나무의 향. 고즈넉한 고택에서 즐기는 힐링의 시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옥이 가진 생활의 불편함을 최대한 덜어내고, 장점은 그대로 살
린 황산리의 원학고가에서 머무르며 1박 2일의 여정을 보낸다.
첫 날 수송대 출렁다리를 비롯해 거창로컬 맛집, 카페를 돌아다니
며 거창의 맛과 멋을 즐긴 뒤, 고요한 고택에 돌아와 우리만의 감
성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다. 전문 디제이가 큐레이션한
음악이 흐른다. 화려한 도시의 네온사인도 좋지만 가끔은 맑은 공
기를 마시며 별이 총총 박힌 밤하늘을 올려다 보는 것도 좋다. 다음
날 아침, 잔잔한 음악과 함께 나의 내면에 집중하는 요가와 명상의
시간을 가지다 보면 몸과 마음이 모두 다독여져있다.





진주 노노이즈 투어

“음악과 카메라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바쁜 일상 속 지나치던 나의 동네, 이번 투어를 통해 그 매력을 찬찬히 살펴보고자 한다. 망경동의 골목골목을 다니며 필름 카메라로 골목 사진도 찍어보고, 팀별 플로깅 미션을 통해 재미와 보람을 동시에 느껴본다. 진주의 로컬 식음료 브랜드마켓 식사 제공까지 진주의 구석구석 즐길 수 있는 투어이다. 이후에는 무소음의 또 다른 매력을 느껴 볼 수 있는 무비 나이트 시간도 가진다. 축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스피커가 아닌 무선 헤드폰을 통해 소리를 공유하여 모두가 소음공해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무소음 헤드셋으로 음악과 함께 여행을 즐기는 색다른 경험을 해보자.







남해 청년센터 바라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16

남해 청년센터는 청년과 관련한 정책을 전달하며,
남해 청년이 서로 연결되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방문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16

운영 : 10:00-21: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전화 : 055-863-1990

홈페이지 : [namhae.go.kr/ youthcenter/](http://namhae.go.kr/youthcenter/)

인스타 : @namhae_youth



“남해 바라”

청년센터 바라는 청년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 이다. 청년이 직접 만드는 행사,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에는 대관 신청을 통해 공간 이용이 가능하다.

소규모 모임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바방’과 ‘라방’, 주방을 활용할 수 있는 ‘멀티라운지’, 도서가 비치되어 있는 ‘독서 공간’, 전시 혹은 작은 강연이 가능한 ‘쇼룸’ 등이 있다. 공간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관이 가능하다.

외에도 귀촌을 희망하지만 어려움이 있거나, 다른 청년들과 연결이 필요한 경우, 상담 및 신청 가능한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해 주기도 한다. 외에도 <청년의 날> 행사와 홈페이지, SNS를 통해 청년정책,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래는 바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들이다.



“아무거나 클래스 ”

아무거나 클래스 프로그램은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강사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 클래스를 대신 열어 지역 주민 대상 또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제공 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이후 자체적으로 클래스를 열어 수업하거나, 자신의 공방을 직접 만들고자 하는 청년들도 생겼다. 가르치기도 하고 배울 수도 있는 경험을 해당 클래스를 통해 얻어 갈 수 있다.

“차담차담 ”

매달 한 명의 청년을 초대해 남해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소통하고, 참여한 다른 청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프로그램이다. ‘남해의 차생활과 일상다반사’, ‘취향의 발견’, ‘이야기 호스텔’ 등을 진행했다.

“물페새 통신”

남해 청년들의 인터뷰와 남해의 정보들을 알리는 신문을 2달에 1번 제작하여 서점 10곳에 배포하고 있다.





의령 청년센터

청춘만개





“의령청춘만개”

청년을 ‘끝까지 응원!’하는 의령 청년센터 청춘만개는 청년들의 공유 공간을 대여해 주고 다양한 클래스와 소모임 활동을 비롯해 여러 가지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공유시설”

- 공유 스터디카페
- 공유 오피스
- 공유 주방
- 사각사각 하우스

“사각사각 하우스”

18~49세 청년 누구나에게 숙박 및 지역살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청춘만개 주방, 스터디 카페, 세탁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약 18㎡로 총 6동이 있다. 최장 2박3일, 3일 이내만 머무를수 있고 사용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 연간 최대 2회까지 가능, 개인 SNS 등 홍보글 업로드

방문 : 경남 의령군 칠곡면 칠곡로 97

운영 : 평일 9:00~21:00, 토요일 9:00~18:00

전화 : 055- 574-9393

홈페이지

uiryeong.go.kr/youthcenter/index.uiryeong







“청춘만개 프로그램”

청년들의 취미활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청춘만개에서는 꾸준히 열리고 있다. 쿠키 클래스, 굿즈 제작, 이모티콘 제작, 퍼스널컬러 클래스 등이 열렸으며, 이번 12월에는 바리스타 자격증반, 크리스마스트리, 캔들, 터프팅 클래스 또한 만나 볼 수 있다.





경남의 전시

G:\WINDOWS\system32cmd.exe

gyeong Window [version 2.0.1]

2024 gyeongnam local art magazine, all right reserved.

G:\Users\NUTS

CHAPTER 1. Gyeongnam Art Museum ,Gimhae museum,Changwoncity
Masen Moon Shin Art Museum, Jinju National Museum

CHAPTER 2. UJU Museum

EXHIBITION



경남도립미술관

〈유택렬 과 흑백다방 친구들〉

전시기간 : 2024.10.31 ~ 2025.02.16

故 유택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며 그가 운영한 '흑백다방' 과 그곳을 중심으로 교우했던 '친구 예술가들'을 다룬 전시이다. 1950년대 이후 경남 예술의 흐름을 살피면서, 교육자이자 문화운동가이기도 했던 유택렬의 전방위적 활동을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경남도립미술관

〈GAM 전시 20년: 어제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전시기간 : 2024.10.31 ~ 2025.02.16

이번 전시는 '전시'가 대변하는 경남도립미술관의 20년 궤적을 조망한다. 경남도립미술관이 개관한 2004년 이래 2023년까지 개최했던 300회 이상의 전시를 성격, 주제, 형식, 내용, 개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크게 다섯 개의 소주제로 분류하고, 그 중에서도 주요한 전시의 선별된 작품과 전시 아카이브를 공개한다.

작품과 함께 처음 선보이는 전시 아카이브는 경남도립미술관이 그동안 경남을 대표하는 문화 예술공간으로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미술계에 반응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점차 확장되는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분주히 달려온 역사를 드러내고 있다.



국립김해박물관 기획전시실

〈히타이트 특별전〉

전시기간 : 2024.10.08 ~ 2025.02.02

히타이트는 기원전 17세기부터 기원전12세기에 걸쳐 아나톨리아와 북부 시리아의 대부분을 통치했던 대제국이었으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보다 덜 알려져있다. 미지의 고대 문명이었던 히타이트는 19세기 점토판 문자가 해독되면서 비로소 뛰어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한 고대 근동지역의 최강국이었음이 밝혀졌다. 우리에게 다소 낯선 머나먼 땅, 히타이트의 문화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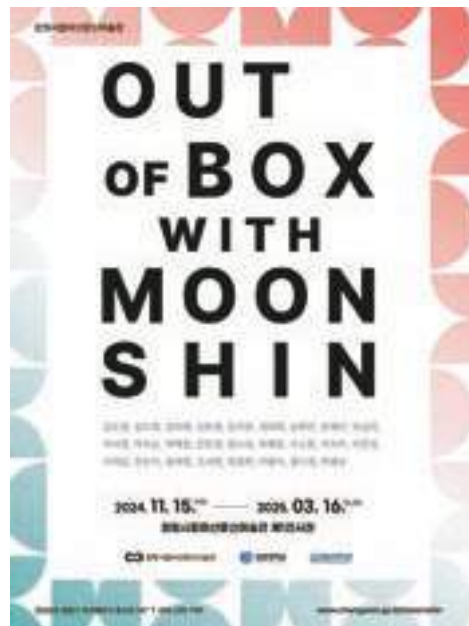


창원시립마산 문신미술관 원형전시관2

〈문신미술관 30년의 기록〉

전시기간 : 2024.05.30 ~ 2025.03.30

문신미술관 건축 과정을 압축적으로 살펴봄, 건립 과정에서 생산된 친필원고와 문서, 사진 등의 자료를 선보인다. 그리고 개관 전시인 《문신 예술 50년》(1994)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개최한 전시, 교육, 학술행사 등 목록을 일괄한 내용이 전시된다.



창원시립마산 문신미술관 제 1전시관

〈OUT of BOX with MOON SHIN〉

전시기간 : 2024.11.15 ~ 2025.03.16

문신 예술을 창의적으로 해석한 패션과 뷰티 작품 전시이다.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국립창원대학교(의류학과), 경남대학교(토털 뷰티 디자인 학과)이 협업으로 이루어진 이번 전시는 26명 학생의 빛나는 성과를 선보이는데, 학생들이 창작의 원천으로 삼았던 거장 문신의 작품과 패션쇼 영상을 비롯하여 패션 의상, 헤어 & 뷰티 사진 및 오브제가 나란히 미술관에 전시된다.



국립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사기장沙器匠, 흙을 빚어 삶을 이롭게〉

전시기간 : 2024.05.30 ~ 2025.03.30

사기장 沙器匠은 도자기를 만들 때 쓰는 흙을 고르는 방법을 알고, 도구를 이용해 도자기를 만들 줄 아는 장인이다. 옛날 고려시대부터 음식을 담는 그릇, 문방구, 지붕을 만드는 기와까지 다양한 도자기를 만들어 왔지만, 사기장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그들의 삶과 가치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던 사기장의 정성을 느껴보고자 한다.

EXHIBITION 우주미술관

우주미술관은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와 장르를 가진 예술품을 비롯해 많은 작가들의 작품성을 지역민들과 관람객들에게 알리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주미술관은 2019년 개관 이후, 코로나로 인한 잠깐의 휴관을 가졌지만, 해당 기간 동안 한국 미술시장의 변화를 발빠르게 흡수하여 2023년 새롭게 재개관 했다. 새로이 문을 여는 우주미술관의 전시는 예술에 대한 한층 깊어진 고민과 깊이로 작품 큐레이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아트를 이용해 한층 더 폭 넓어진 기술과 예술의 만남으로 관람객들에게 작품과의 소통이 더욱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우주미술관은 역사적으로 예술,문화의 장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이를 위해 작가와 관객이 하나로 연결되어 폭넓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획의 장을 마련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2024.11.04 ~ 12.31
박동열 작가를 비롯해 여러 작가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전시이다. 우리의 내면을 탐구하고 각 작품이 지닌 이야기를 통해 깊은 감동을 느껴 볼 수 있다. 다양한 작품을 통해 예술의 새로운 시각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주미술관의 로고는 독일 노이슈반슈타인성의 내부에 그려진 신화속 우주를 나타낸 벽화를 보고 감명을 받아 제작되었다. 무한대로 뻗어가는 예술의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해 반원의 형태와 무한으로 가는 빛을 넣어 완성되었다.

경남 사천시 정동면 사천강1길 3 1층
10:00 - 18:00 (일요일 정기휴무)
@ujumuseum
<https://www.ujumuseum.com>



한국 작품의 아름다움이 점점 더 세계를 뻗어 인정받고 있는 시점이다. 우주미술관은 경남 거점의 아름다운 미술관으로서, 좋은 작품의 예술을 관람객들과 향유하고 탐구하며, 문화적 호기심과 심미성을 충분히 충족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활발히 해 나갈 것이다.





50



46



22



